

농협, 올해 벼 농가 출하 물량 전량 매입

이성희 농협중앙회 담양 방문 매입자금 2조1000억원 지원 산물벼 매입 비중 90% 확대 올 수매가 소폭 상승 전망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이개호 국회의원 등이 5일 오전 담양군 금성면을 찾아 벼를 직접 수확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2020년산 벼 출하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을 밝혔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5일 담양 벼 수확 현장을 찾아 “2020년산 벼 출하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2019년산 구곡 재고가 모두 소진되고 쌀 수요가 유지되면서 전남지역 원료곡 수매가(만생종·40kg)가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이날 담양군 금성면 벼 수확 현장을 방문, 농업인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쌀 수확기 대책을 밝혔다.

수확기 ▲농가 출하 희망물량 전량 매입 ▲벼 매입자금 2조1000억원 지원 ▲고령 농업인을 위한 산물벼 매입 확대 ▲산지농협 보관·저장능력 향상 ▲태풍 피해해 정부 특별매입 등이 골자다.

농협은 2020년산 벼의 농가 출하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농업인 판매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올해 매입량은 전년의 농협 매입량과 동일한 165만 수준이다. 이는 올해 쌀 생산 예상량인 368만3000t의 44.8%에 해당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올해 쌀 생산량은 1년 전보다 1.6%(-6만 1000t)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벼 재배 면적은 72만6432ha로, 조곡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보다 감소 폭(-0.5%)이 둔화했다.

또 농업인의 어려움을 동참하고 지역농협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산 벼 매입자금은 전년도 1조9000억원보다 2000억원 늘린 2조1000억원을 무이자 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농협의 벼 매입자금 자부담액은 기존 700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28.6%) 수준으로 경감된다.

생산농가의 벼 건조 노동력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총 매입량의 87% 수준이었던 산물벼 매입을 90% 이상으로 확대한다. 벼는 포대벼와 건조되지 않은 채 수확한 상태 그대로 매입하는 산물벼로 나

뉜다.

또 산지농협의 보관·저장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건조저장 시설 16개소를 조기 완공할 예정이다.

올해 태풍 등으로 발생한 피해 벼는 농협을 통해 전량 매입해 저품질 벼의 시장 유통을 방지하고, 농가의 어려움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전남 평균 원료곡 40kg 수매가는 6만2000원으로, 올해 가격은 500~1000원(0.8~1.6%) 가량 소폭 오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달 하순

2019년산 구곡 재고가 전량 소진됐다”며 “조벼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25일 기준 정곡 80kg 산지 가격은 19만3316원으로, 1년 전(18만5520원) 보다 4.2%(7796원) 올랐다. 전달보다는 0.8%(1444원) 상승했다.

이성희 회장은 “올 한해 유례 없는 긴 장마와 수확기 연이은 태풍 피해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쌀값 안정과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58.00 (+30.11) ↑ 금리(국고채 3년) 0.881 (+0.035)
- ↑ 코스닥 858.39 (+10.24) ↓ 환율(USD) 1163.40 (-6.10)

언택트·디지털 금융 선도 광주은행, '전모바일적금' 출시

연 최고 4%P 우대금리 를 제공한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연 최고 4%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적금을 내놓고 관련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5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과 모바일웹뱅킹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전모바일적금'을 최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적금은 6개월 이내로 가입해 월 3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기본 금리 연 0.4%가 적용되며 ▲오픈뱅킹 1만원 이상 3회 이상 이체 때 연 0.5%포인트 ▲광주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연 0.5%포인트~3.0%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입하면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비대면 가입 때 돌발문제를 맞추면 연 0.1%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다.

박기원 광주은행 영업기획부장은 “디지털·언택트 금융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 트렌드를 선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비대면 전용 적금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오는 11월15일까지 '2020 전모바일적금 상품가입 이벤트를 진행하며 광주은행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다른 은행 계좌에서 해당 적금 계좌로 1만원 이상 입금하면 커피 상품권을 선착순 2020명에 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비대면 추석에 선물 판매 늘었다

정육 세트·지역특산품 인기

비대면 추석 문화와 청탁금지법 완화 영향으로 광주 주요 백화점들의 추석 선물 매출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완화되면서 한우와 와인 선물이 인기를 끌었다.

5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추석 선물 본 판매를 진행한 지난 달 14~29일 매출은 지난해 추석 판매 기간(8월26일~9월10일)에 비해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선물 배송 건수도 1년 전보다 20% 늘었다. 이 점포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았던 추석 선물 상품은 와인으로, 무려 75% 매출이 올랐다.

건어물·해산물 매출이 53% 오르며 뒤를

이었고, 흥인삼 제품(32%), 선어(26%), 건강식품(22%), 과일(12%), 정육(9%) 부문도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굴비 매출은 7% 떨어지며 유일한 감소세를 보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선물 세트 판매 기간(9월7~29일) 매출이 1년 전보다 5.1% 증가했다.

특히 이 점포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가에 속하는 정육 세트 매출이 지난해보다 37.5% 올랐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역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한 특별 선물 세트는 15.0%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이곳에서는 흑산도 홍어, 목포 먹갈치, 곡성 멜론 등 지역 특산품이 소비자를 만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중기 연구소 보유율 1%도 안돼

광주 0.7%·전남 0.4%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비중이 광주·전남 모두 1%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중소기업 사업체 및 기업부설 연구소 현황'에 담겼다.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비율은 광주 0.7%, 전남 0.4%로 집계됐다.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 1%에 못 미쳤고 광주는 17개 시도 중 8번째, 전남은 15번째로 하위권에 들었다.

연구소 보유 비율이 1%를 넘긴 지역은 서울(1.5%)과 경기·대전(각 1.4%), 세종(1%) 등 4곳 뿐이었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1.9%(774개), 전남 1.7%(680개)로 전국 12~13번째에 올랐다.

서울(29.5%·1만1868개)에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가장 많았고, 경기(31.2%), 인천·경남(각 4.5%), 부산(4.4%), 대전(3.9%), 경북(3.4%), 대구·충남(3.3%), 충북(2.8%), 전북(2.4%)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 부설연구소(4만211개)의 65.2%(2만6409개)가 몰려 있었다.

연구원 비중은 광주 1.6%(3169명), 전남 1.2%(2445명)에 그쳤다.

지난 2018년 기준 지역 중소기업체는 광주 11만1453개·전남 13만8272개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2.9%, 3.6%에 불과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호고속 “전남 관광지 잊지마세요”

버스 랩핑 홍보 확대

금호고속은 차량 랩핑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 축제와 관광지 알리기에 나섰다. 5일 밝혔다.

5일 현재까지 해남, 장흥, 강진군이

함께했으며, 영광군에서 주최하는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랩핑 차량(사진)이 운행을 개시한다.

앞서 이달 28일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2020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는 코로나19로 내년으로 연기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